

그 사람 지금은

(18) 박상구 前 삼양타이어 회장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명수바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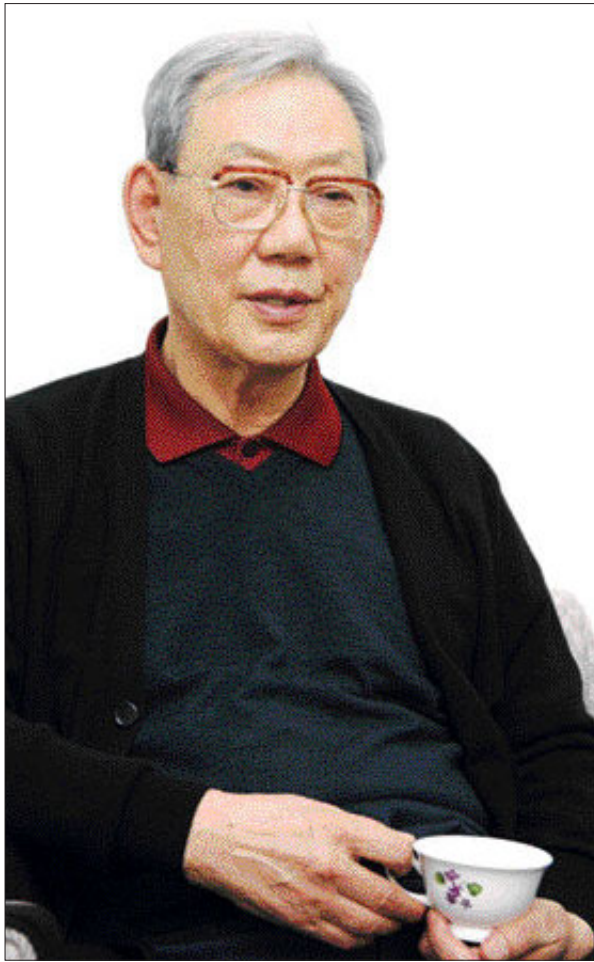
“고향 광주 경제발전 기여하고 싶어”

박상구 부산저축은행 명예회장은 부산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박 명예회장이 부산에 간 1988년 당시 부산상호신용금고의 매출은 부산의 28개 상호신용금고 중 27위. 자기자본금 20억원, 예금총액도 12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했다. 무엇보다 공신력을 확보가 시급했다.

“직원 30명의 임무를 분담했습니다. 10명은 평상시대로 금고 업무를 맡게 했고 또 다른 10명은 돈을 빌려주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직원 한 사람이 10명의 고객을 맡아 새벽 기상시간까지 체크했을 정도였어요. 당시엔 서울의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요”

나머지 10명은 1급 건설회사의 어음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현금과 다름없는 금고의 보증수표를 발행해 이들 건설업체의 하청업체와 어음을 교환한 것. 이렇게 확보한 어음은 일본계 은행인 아미구치은행에 제공했다.



- 약력**
- ▲1923년 나주 다시 출생
 -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 ▲광주여객 전무
 - ▲삼양타이어 사장·회장
 - ▲부산상호저축은행 사장·회장
 - ▲정산문화복지재단 이사장

삼양타이어 '동지'들과 부산행

전국 제1위의 상호저축은행 이끌어

“이런 일을 6개월 정도 반복했을 때였습니다. 아미구치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신력을 쌓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자 아무런 조건 없이 20억원을 싣듯 내주더군요”

아미구치은행의 대출은 부산상호신용금고의 도약에 날개를 달아줬다. 다른 외국계 은행에까지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쿄은행·도이치은행 등에서도 20억원을 각각 끌어들이 수 있었다.

부산상호신용금고는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1999년 3월에는 새부산신용금고를 인수하여 부산2상호저축은행을 개점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의 중앙저축은행을 인수,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오픈했다.

2006년말 현재 자기자본금 2천666억원, 예금총액 2조8천392억원의 ‘알짜배기’로 거듭났다. 지난해 두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70여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기록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규모는 전국 114개 상호저축은행 중 단일점포 1위다.

박 명예회장은 요즘 월요일에는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화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서울 논현동 금장빌딩 사무실로 출근한다.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 자리는 장남인 연호씨에게 물려줬고 사장은 김양씨에게 맡겼다. 또 부산2상호저축은행 사장은 김민영 사장에게 맡겼다. 모두 삼양타이어를 그만 두고 88년 함께 부산으로 온 동지들이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출근을 하고 있다.

슬하의 4남2녀 중 두 딸은 시집가 잘 살고 있고 둘째 아들

인 연준씨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코일을 판매하는 금장스틸의 사장을 맡고 있다.

또 셋째 아들인 연일씨는 부산의 친구들과 전산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넷째 아들 연태씨는 토목건축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됐으니 큰 걱정은 없는 셈이다.

박 명예회장은 최근에 호남학 연구 발전을 위해 전남대학교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호남의 정신과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이를 현재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격려, 지원하는 차원이었다.

또 지난 2005년 9월에는 은행 지분 10%를 출연해 ‘정산문화복지재단’을 설립,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부산·경남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액수가 3억2천여만원이나 된다. 올해는 4억2천여만원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성장기도를 달리던 지난 1991년 사업계획설명회에서 박상구(연단 앞 맨 왼쪽) 당시 회장이 김양 사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명예회장의 오른쪽으로 장남인 연호씨, 김민영 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 명예회장은 “나이를 먹으니 재물 욕심이 없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 그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런 기업이 많아야 지역이 잘 살고 활기를 띤다”며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장학재단의 재산도 불어나면 몇 년 후에는 연간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그는 특히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부산상호저축은행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함께 고생한 자식들(45%)과 직원들(45%)에게 양도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의 절반을 직원에게 나눠 준 것이다.

은행지분 10% 출연 장학사업 활발

기업이윤 사회환원 늘어야 지역 발전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주인이 세 명이면 3배, 5명이면 5배로 기업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혼자 일했으면 이만큼 회사를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나눠가지는 것이지요. 아마도 부산상호저축은행의 회사 규모는 2~3년 후 두배쯤 확장될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광주에서 활동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박 명예회장은 바로 “일거리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는 그리고 “광주에 가서 일할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향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말해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광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할 뜻을 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성기자 ksgo@kwangju.co.kr

1934년 건립된 ‘영산강 등대’ 등댓불 식별 가능거리 13마일

목포항에서 영산강 뱃길로 20여km를 거슬러 오르면 주룡협곡에서 벗어나 드넓은 내해(內海)가 펼쳐진다. 북쪽은 남해만이요, 동쪽은 덕진만이다. 두 갈래 수로 중 남해만 초입에 암초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무안에 사는 가난한 모자가 썰물 때 굴을 채집하던 곳이다. 어느 날 아들은 술에 취해 여(巽)에서 홀로 굴 따는 모친을 잊어버린다. 밀물이 들어올 때 까지 아들 명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자 어미는 숨을 거둔다. 목이 터져라 “명수여!”를 부르던 한(恨)은 ‘명수바위(蒙島)’의 기원이 됐다.

1948년 조선해안경비대 ‘등대표’ 자료에는 “171번째 일표 명칭인 몽탄진의 상부는 원주철조목표구(圓柱鐵造目標球)형이고, 하부가 타원(橢圓)형 콘크리트조이며, 높이 7.6m 규모로 간조 때 보이는 초(礁)가 1.5m”라고 기록돼 있다. 2003년 전라남도 근대문화유산 조사자료는 1934년 건립된 등대로 지리적 광달거리(光達距離)가 13마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등대에서 상류 5km쯤에는 암리 또는 누에를 닮았다는 ‘양호도(羊湖島)’라는 섬이 있다. 일제는 이 섬의 동편 수로의 중간지점인 나주·영암·무안 일대를 영산강 하구로 정하고, 길이를 115.8km라 했다.



영산강의 유일한 등대였던 명수바위 등대

양호도는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소속이나, 1917년 8월까지 영암군 시종면 땅이었다.

처음 영암에서 선산림(善山林)씨가 들어왔고, 달성배(達成裴)씨 윤우(潤祐)가 1691년 시종에서 이사오면서 남동쪽에 배씨 집성촌이 형성된다.

1910년대 배씨 들은 대지 25필지 1천794평을 비롯하여 74필지 18,188평을 소유하는 등 땅의 75%를 차지한다.

선산림씨는 임야 4필지 1,618평을 포함하여 16필지 3천500여평으로 15%정도를 점유하고, 이월비(李月非) 명으로 7필지 1천700여평이 등록되어 있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 토지가 배씨 소유가 된다.

이 곳에는 15톤급 ‘중선배’ 또는 ‘일중선’이라고 부른 범선(帆船)이 20~30척 있었다. 앞뒤에 두 개의 돛대를 세운 배들은 비금도 파시, 군산항, 연평도 파시까지 들렀다. 어획고와 수입이 좋아 회항할 때 남은 물고기는 밭에 비료로 이용할 정도였다.

1973년 내무부 발행 도서지(島嶼誌)를 펼친다. 8ha크기의 섬에는 4호 26명이 밭 5ha에 보리와 콩을 재배하며, 패류를 채집하고 살았다.

제4공화국 말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모두 떠나갔다. 1980년대 영산강 하구둑이 축조와 함께 육지가 되었다. 배씨사당인 양호단이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위원장)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김동원